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1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노동리뷰』 4월호 - 이슈분석

■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남재량 부연구위원)

- 청년실업 문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들(facts)을 찾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임. 즉 동태적으로 볼 때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며 입직률이 낮아서가 아님. 따라서 인턴제와 같은 입직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둘째, 우리는 청년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규 졸업자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신규 고졸자의 경우 실업률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직률과 이직률은 가장 높음. 이는 신규 고졸자의 일용직화에 기인함. 더군다나 이들의 이직률과 입직률 및 일용직 비중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크게 높아졌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경우 청년 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 인턴제를 비롯한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직업교육 강화, 정보유통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고졸자나 청년무업자(NEET, 남재량(2006))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부연구위원

Tel : 769-1958 E-mail : jrnam@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담 당 자	남재량 연구위원
전 화	02)769-1958

- 그동안 우리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 비해 청년 실업 정책들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사실 청년 실업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님. 경제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년의 실업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정책 효과 간 괴리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음.
-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은 이행확률 모형이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임.
 -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실업률은 이직률(job separation rate)과 입직률(job finding rate)에 의해 결정됨.
 - 이행확률 모형을 사용하여 이직률과 입직률 등의 유량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 청년의 실업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임.
 - 즉 동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높은 것은 이들의 이직률

이 높기 때문임. 청년의 입직률은 기간 노동력(30-54세)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인턴제와 같은 입직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둘째,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집단은 청년 가운데에서도 신규 졸업자인데 이들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신규 졸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아 대신 청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로 구축하면 신규 졸업자들을 식별할 수 있고 이들의 정태적, 동태적 특성들을 밝힐 수 있음.
-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직률과 이직률은 학력집단들 가운데 가장 높음.
- 이는 신규 고졸자의 일용직화에 기인함. 신규 고졸자 10명 중 4명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적임.
- 즉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고 해서 별 문제없는 것이 아님.
- 더군다나 이들의 이직률과 입직률 및 일용직 비중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크게 높아졌고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함.

○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경우 우리나라 청년 실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신규 고졸자는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함. 아울러 청년 무업자(NEET)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함(남재량, 2006).
- 따라서 인턴제를 비롯한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직업교육 강화, 정보유통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고졸자나 청년무업자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